

## 이는 너희를 위하여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하기가 지난 5월 5일이 입하(立夏)였으니 그럴 만도 하겠습니까만 예전에는 선풍기만으로도 더위를 버틸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에어컨 없이 어떻게 여름을 지낼까 할 정도로 덥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면 추억이라 해야 할지 그냥 기억이라 해야 할지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사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에는 집에 중간 바람, 센 바람 딱 두 가지만 조절할 수 있고 타이머 등 다른 기능은 아무 것도 없는 몸체가 무쇠로 된 투박한 선풍기 한 대만 있었습니다. 그 선풍기는 바람을 낼 때 소리가 굉장히 컸을 뿐 아니라 조용한 바람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잠을 잘 때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름밤마다 작동되는 다른 선풍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부채질이었습니다. 동생과 제가 누워 잠을 청하면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가 잠들 때까지 부채질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풍기 또는 에어컨 역할을 어머니께서 해주신 셈입니다. 어머니의 수고 덕분에 시원하게 잠들었던 것은 기억이라기보다는 추억이라 할 수 있겠지요?



오늘은 전례적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과 구원의 음료(로마 미사 경본, 예물 준비 기도)가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현존을 기념하고 묵상합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19) 이처럼 성체성사 신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신비에서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갈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히 성체성사로 하느님과 사람에 대한 저 사랑이 전해지고 자라난다.”(교회 헌장, 33항)라고 가르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권고 “사랑의 기쁨”에서 가정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개인주의의 위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개인주의는 가정의 유대를 왜곡시켜 결국 가정의 구성원들을 고립된 개체로 간주해 버립니다.”(사랑의 기쁨, 33항) 이 말씀대로라면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가 특히 가정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됩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할 일만 신경 쓰고, 친교를 위한 시간이나 수고의 나눔이 없으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생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가정에 대해서도 커다란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 곧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듯이 가정에서의 삶 역시 자신을 내어 주는 사랑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중심으로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걱정하고 또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가정에서 성체성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성체성사의 삶을 통해 가족 안에서 얻게 되는 추억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요한 15,4)

박상용 사도요한 신부  
본지 주간



가정교리 (3)

삼위일체(三位一體)

글자 그대로를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부의 위격이 다르고, 성자의 위격이 다르고, 성령의 위격이 다르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천주성은 하나이고, 그 영광은 동일하고, 그 위엄은 다 같이 영원하다.”(266항) 창조로부터 시작된 시간은 성령 안에서 부활한 성자를 통하여 모든 피조물, 특히 인간에게 다가가는 성부의 구원역사입니다. 또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인간과 세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께로 다시 돌아가는 귀환의 역사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에서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졌고, 하느님께로 돌아가 마침내 완성을 이루는 구원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삼위의 하느님께서 온전히 서로 내어주는 사랑에서 피조물을 있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내어줌으로써 하느님과 그리고 이웃과 하나 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금빛**



교황님 한 말씀

부부의 사랑

부부사랑은 남편과 아내를 일치시켜 주는 사랑이며, 이는 혼인성사의 은총으로 거룩해지고 풍요로워지며 명료해집니다. (사랑의 기쁨 120항)



이달의 성인

성 야고보



성 야고보 사도(Jacobus, 축일 7월 25일)는 제베대오의 아들이며 사도 요한의 형입니다.

그는 복음의 주요 순간을 목격한 증인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의 순간(마태 17,1), 겟세마니 동산(마태 26,37)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야고보 사도는 주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성 야고보는 헤로데 아그리파 1세 임금 때에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을 받으셨고 사도로서는 첫 순교자가 되셨습니다.(사도 12,1-2)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 사도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그 당시 세상 끝이었던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지방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제자들이 사도의 유해를 갈리시아 지방으로 모셔갔는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순례하는 산티아고 순례길(Camino de Santiago)의 종착지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Catedral de Santiago de Compostela)인 이유는 이곳에 야고보 사도의 유해가 모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상징은 조개(조가비)껍데기며, 이 때문에 순례길에서 조개껍데기 이미지를 자주 보게 됩니다. **금빛**



이쿠동성



세계 여러 나라말로 미사 경문을 배워볼까요?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영어]

And with your spirit.  
앤드 위드 유얼 스피릿



[일본어]

また司祭の靈と共に  
마따시사이노레-또토모니



[중국어]

也与你的心灵同在。  
에위니더신링통자이



[베트남어]

Và ở cùng Cha.  
바 어 쯡 짜.



[스페인어]

Y con tu espíritu.  
이 쾰 투 에스빠리뚜.

찬미받으소서

보편적 연대



읽기

14항: 우리는 새로운 보편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는 남아프리카 주교들이 말한 대로입니다.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인간이 저지른 피해를 복구하려면 모든 이의 재능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신의 문화, 경험, 계획, 재능으로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피조물 보호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의 집 지구에 사는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서로 연대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대를 통해 우리는 지구적 문제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공동의 집에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비록 생태 위기는 심각하고 거대한 문제이지만, 인류가 연대해서 함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할 때 새로운 가능성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실천하기

“예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감탄하셨던 그 시선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찬미받으소서 98항-100항 참조)

생각하기

Q. 교황님께서 강조하시는 ‘보편적 연대’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생태 위기의 원인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있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모든 이가 함께 협력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위원장 박현동 아파스)에서 2022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이하여 담화를 발표 하였습니다. QR코드를 참조해주세요. **금빛**



생태영성 (3)

環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창세 1,3)  
하느님은 첫날 빛을 세상에 드러내셨다.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세상에 빛을 주셨다. 그래서 빛은 인간에게는 앞선 스승이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 빛 안에 어둠도 함께 주셨다. 낮과 밤은 그렇게 우리에게 미리 주어졌었다. 낮과 밤은 서로가 등지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하는 친구로 우리에게 드러났다. 서로 어색할까 싶어서 새벽과 땅거미라는 연결고리로 이어지게 했다. 빛과 어둠이라는 이분법적인 양극단으로 내몰지 않으셨다. 더군다나 빛에만 현혹될까 싶으셔서 어둠이라는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당신에게 기댈 수 있게 만드셨다. 어둠 속에서 인간은 빛을 만드신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는 깨달음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우리 신앙인들이 읽어 내야 할 것은 생겨난 <빛에 대한 감탄>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연결 고리이다. 겉으로 드러난 빛 이전

에 있었던 말씀의 힘에 감동하고, 그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빛에 도취되어 나도 모르게 빛을 만드신 말씀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순간적인 빛에 현혹되는 삶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후유증을 남긴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밤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인간이 만든 빛에 기대며 사느라 밤을 잊은 지 오래이다. 이 말은 곧 하느님께 무관심한 현대인들의 단면이기도 하다. 빛을 만드느라 소비되는 에너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때이다. 밤을 되찾는다는 것은 하느님과 나와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빛을 끄고 어둠 속에 머무르는 신앙인이 되기를 고대해 본다.

김호균 마르코 신부 (교구 생태위원장)



몸의 신학 (2)

하느님 계획 안에 있는 인간사랑

-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신학’-

하느님을 닮은 인간

오늘날 주변에서 비교적 흔히 만나게 되는 채식주의자 혹은 비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졌다. 예전처럼 그저 인간의 생존을 위해 생명을 지닌 동물들을 죽이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 초점을 둔 채식주의라면, 식물 역시 움직이지 못하지만 생혼으로 구별되는 생명을 지닌 존재라는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채식주의자들의 초점은 단순히 동물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을 동일한 가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식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생태환경의 파괴를 반대하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식물도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지닌 존재임은 분명하다. 그러기에 생존을 위한 영양분과 알맞은 환경이 필요하고, 또 성장하고 자극에 반응하며 살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혹은 인간의 생명이 구별되는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순차적인 세상의 창조에서 “보시니 참 좋았다.” 라고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과 인간 창조에서 표현되는 것은 다르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과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창세 1,26-27) 인간이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석상희 요셉 신부 (교구 사목국 차장)



생태 사진

꽃의 영광이여!



촬영 : 김태진 대건안드레아 기자

부부 이야기

# 우리 가정에 날개가 되어

오래전 일이다. 모두가 잠들었을 늦은 밤, 더 이상은 이렇게 못살겠다고 비장한 결심으로 짐을 꾸렸다.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잠들어 있는 발렌티노를 매서운 눈초리로 쏘아본 후 조용히 일어났다. 등에는 아직 돌 안된 둘째 아이를 업고 앞에는 잠이 든 3살 아이를 안으니 더 이상 다른 건 챙길 여유가 없었다.

‘아이 하나 더 있었으면 도망도 못 가겠네’라는 생각이 드니 실소가 나왔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문득 머리를 스친 게 우습게도 선녀와 나무꾼에 등장하는 사슴의 말이였다. ‘선녀가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 날개옷을 주시면 안돼요.’

어릴 적에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새삼 사슴의 지혜에 감탄했다. 구전동화가 역시 허투루 지은 게 아니였다. 선녀는 옷이라도 빼앗겨 어쩔 수 없이 살았다지만 난 내 손으로 선녀옷 버리고 혼인한 것인데 무얼 원망하고 도망쳐버리려는 것인가.

나는 참 어리석었다. 학교 공부나 열심히 하며 지식을 쌓는데만 급급하였고, 지혜는 없었다. 혼인을 하면 겨울이 봄으로 바뀌는 줄 알았다. 그저 시간만 지나면 겨울에서 봄이 저절로 오는 줄 알았다. 그러나 겨울 매서운 바람 앞에 겨울나무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였다. 나무에 청진기를 대어보면 물을 빨대처럼 빨아들이는 폭풍우 같은 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나무는 열심히 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참 몰랐다. 봄은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였다. 나는 속이 푹푹 얼어붙은 겨울나무가 되어 왜 봄을 나에게 주지 않냐고, 원망하며 울고 질질

짜다 지쳐있었다. 그러다 혹시 다른 곳에 봄이 있을지 모른다고 두 아이를 끌어안고 떠나려고 했던 것이다.

고맙게도 하느님은 나에게 사슴이 되어 힘들 때 길을 찾아 주셨다. 바로 주말 ME를 통해 봄 만드는 방법을 배워가게 되었다. 차츰 아이들과 발렌티노에게 봄 같은 엄마, 아내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얼음 조각이 한 번씩 날카롭게 날 찌르고 가족들을 찌를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ME에서 배운 대화법으로 조금씩 녹이는 게 다였다. 그렇지만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봄기운으로 퍼져 나갔다. 점점 새순이 돋아나는 듯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새삼 행복을 느낀다. 물론 아직 부족함이 많은 나라서, 한 번씩 내 날개옷 찾겠다고 소리 지르고 싸우기도 한다. 사실 이젠 아이가 셋이라 소용이 없긴 하지만 말이다.

주말 ME는 나에게 날개옷보다 더 귀한 선물을 주었다. 내가 머무는 곳, 내가 머물러야 하는 곳,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게 날개가 되어 주었다.

이렇게 우리 가정에 봄을 가져올 수 있게 지혜를 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곽재혁 발렌티노  
전희주 로즈마리 부부  
(ME 대구협의회)



## 한줄 성경말씀

“사랑은 친절합니다.” (1코린 13,4)

### 기도시

## 가정을 위한 기도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 가정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온전히 주님께 의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혼자 힘들어하지 않게  
주님께 받은 믿음의 선물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저희 가족이 어느 곳, 어느 것에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주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어  
사랑으로 공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총 내려주소서



김미숙 파비올라  
(지산성당)

### 라떼는

## 첫 영성체



(제공 : 교구사료실)

1972년 대봉성당  
좌측 세번째 줄 故 최영수(요한) 대주교



부모와 자녀 관계 (3)

## 부모의 공감은 자녀의 마음을 키웁니다.

“선생님! 신앙을 가진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공감받지 않나요? ‘하느님 제가 슬퍼요.’ ‘하느님 제가 정말 속상해요.’라고 말하면 저는 공감 받는 것 같아요.”라는 어느 자매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보통은 부정적인 감정을 누군가에게 내어놓는 것만으로도 정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만약 안전하고 든든한 누군가가 팽배한 자신의 감정을 들어주고, 진정시켜 위협했던 감정이 순화되면 자신이 수용되고 보호받는 중요한 존재로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감은 서로 간의 소통이나 대화 그 이상을 경험하게 합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공감은 자녀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생활에서 시시각각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성공적으로 다루었던 경험으로 마음을 튼실하고 활력 있고 조화롭게 성숙시켜갑니다. 이때 지속적인 부모의 공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 부모가 자녀를 공감할 때 자녀의 마음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자녀가 욕구, 필요가 떠올라 말하니, “충족되고 편해지네. 말하는 건 좋구나”, 생각, 의견이 떠올라 말하니, “들어주고 방향성도 생겨! 표현은 좋은 거야”, 싶어 말하니, “함께 신나 해주네, 좋구나”, 좌절과 걱정이 생겨 말해보니, “안심시켜주고 확신을 주네, 말하길 잘했어!”, 화나서 표현해보니, “진정되네, 표현하니 좋다. 감정은 이렇게 다루는구나!”」

이런 경험의 과정에서 표현하는 자녀(자기)와 공감하는 부모(대상), 그리고 그 순간 편안하면서 수용되는 느낌과 태도(방법)가 하나의 세트가 되어 무의식적으로 마음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내재화). 이후 같은 양상이 반복 경험되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표현해도 되는 나(믿을 만한 나) 그리고 나를 잘 받아주는 부모(믿을 만한 세상)가 마음의 구조에 확립(내면화)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신뢰(basic trust), 근원적 안정감(basic security)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내면화된 정서적 내용은 자녀가 하느님과 사람들을 신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원동력으로 쓰입니다.

그러려면 부모는 자녀와 대화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태도를 일단 버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보이고 들리는 사실에 집중해서 그 사실과 상황에서 자녀의 감정과 의도를 먼저 듣는 노력을 꼭 연습해주세요. 이 과정을 공감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공감적 경청으로 듣게 된 자녀의 감정과 의도를 따뜻하게 말해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통해 괜찮은 자신을 보고 안심하면서 스스로 다음 단계로 향합니다. 이때 자녀가 대안과 방향성에 대해 부모와 나누길 원하면 함께해 주세요. 부모님들의 노력에 늘 하느님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한혜숙 에밀리아나  
(대상관계심리상담사)



편지글

## “어무이 살로메”께

- 60세의 아들이 80세의 어머니께 -



‘어머님’이 어색하여 ‘어무이’로 칭함을 용서하소서. 어무이께 편지 쓴 것이 군대 가서 몇 통 보냈던 기억밖에 없으니 수십 년은 된 것 같습니다. 어무이 존재 자체가 애달고 몽클한 맘 뿐이지만, 어무이의 ‘믿음’은 제 신앙의 뿌리였습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서너 살짜리 아들 세 명에게 세례를 받게 하면서 가졌을 신앙에 대한 기대-하나님은 사제가 되면 좋겠다-에 부응치 못한 큰 죄를 지은 것이지요. 시부모님의 천주교 입교 권유를 충실히 따라 귀염을 받았던 둘째 며느리, 맏이인 큰 집과의 형평성 없는 재산 분배에서도 기어코,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며 불쌍사나운 집안의 세속적 다툼을 과감히 양보(?)한 대가로, 혹독한 현실에 마주친 가난의 그 헤침 과정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잡자기 전 기도를 안했다’며 곤히 잡든 저희를 기어코 깨워 일으키어 두 손을 모으게 했던 그 강제적인 믿음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뭘 듯이 좋아하시던 제 첫영성체 날의 환한 그 웃음, 제게는 정겨운 추억의 한 장면입니다. 강원도 산골로의 보따리 행상과, 그 후유증으로 얻은 지금의 병고 또한 잊지 못합니다. 제가 ‘신부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리 됐으면 원이 없겠다.’ 하시던 그 진지한 반응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도 그 일을 늘 아쉬워하셨지요. ‘이웃사랑은 손해 보고 사는 거’라시며 ‘내 탓이오!’를 말로만 하지 말라’시던 잔소리들을 기억합니다. ‘신자라서 너무 좋다!’시며 제

아내 세레나를 반겨 주시던 모습, ‘미사만한 흠숭과 추모의 제사가 없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 네 아버지 모두 내가 성당 가는 걸 무척 좋아하셨다’며, 기제사 명절제사를 모두 미사 예절로 바꾸신 어무이의 결단에, 당신 며느리 우리 세레나는 너무나 현명하고 고맙더라며 지금도 늘 자랑거리로 삼는답니다. 좋은 땅에 상급의 씨앗을 뿌리셨으니 이제 풍성한 줄기와 열매가 열릴 거라 기대합니다. 어무이를 잠시 안고 내려온 병원 계단...눈물이 났습니다. 원래 이렇게 가벼웠던가요? 속절없는 세월에 안타깝기만 하지만 이제 제가 감히 당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여전히 의연하신 루르드 성모님의 전구를 들어 주시어, 제 어무이 살로메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청하는 이 못난 자식의 기도 또한 한번만 들어 주소서. 아멘.

이근진 야고보  
(1대리구 태전본당)



어무이와 이근진 야고보 부부

노년의 영성

성공적인 인생살이

성공한 인생이란 어떤 인생을 말함인가? 성공(成功)이란 무엇일까? 성공의 사전적 의미는 “목적하는 바를 이룸”을 말한다. 따라서 성공한 인생이란 인생의 목적을 이룸을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각자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자기 인생의 목적을 뚜렷이 밝히는 학생을 찾아보기 힘들다. 기껏 한다는 대답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란 과연 어떤 삶을 말함인가? 부자는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렇다면 부자는 행복할까? “적게 먹든 많이 먹든 노동자의 잠은 달콤하다. 그러나 부자의 배부름은 잠을 못 이루게 한다. 고통스러운 불행이 있으니 나는 태양 아래에서 보았다, 부자가 간직하던 재산이 그의 불행이 되는 것을.”(코헬 5,11-12)

옛날 교리서 ‘천주교요리문답’ 첫 질문은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인생의 가장 근본이 되는 질문을 던진다. 그 대답은 “사람이 천주를 알아 흠숭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났느니라.”라고 답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 사랑과 구원(救援)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사람이 천주를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려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이뇨?” 답은 “사람이 반드시 천주교를 믿고 봉행(奉行) 할지니라.” 즉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잘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석돈 시몬 (정평 성당)



曾子曰 吾日三省吾身하나니 爲人謀而不忠乎아 與朋友交而不信乎아 傳不習乎아니라.  
증자왈 오일삼성오신 위인모이불충호 여붕우교이불신호 전불습호

나는 매일 나 자신을 세 가지로 반성한다.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정성을 다하였는가? 벗들과 함께 서로 사귀는 데 신의를 다하였는가? 전수 받은 가르침을 반복하여 익혔는가?

활기찬 노년

영천 자천공소 샷별밴드

가톨릭 금빛신문은 활기찬 노년을 살고 있는 영천성당 자천 공소(회장: 박진상 세례자 요한)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샷별밴드를 찾았습니다. 샷별 밴드(지휘: 이영철 아오스딩)는 음악을 통해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고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의 도구가 되기 위해 2015년에 결성되었습니다.

현재 23명(70-80대 10명, 60대 10명, 40-50대 3명)의 멤버가 활동 중이며 드럼 파트와 색소폰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샷별 밴드는 미사 성가 반주와 함께 지역 내 산자연중학교, 자천면민 행사 및 어르신 잔치에도 적극 참여 하며 교회 밖에서도 음악을 통한 복음 전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5월 28일에는 신자와 가족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여 팬더믹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음악을 통한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고령 멤버인 서태랑 비오 형제는 ‘처음에는 미숙하였으나 지금은 미사 성가 반주도 봉사하고 있을 정도라며, 밴드 활동을 통해 영적인 안정도 가져오게 되어 이 시간이 설렌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휘자 이영철 아오스딩 형제는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자천 지역과 영천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샷별 밴드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취재·촬영: 박헌식 프란치스 기자



샷별밴드 단원 단체사진

계절별미



6월의 레시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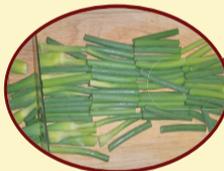
마늘쫀 돼지고기 볶음



계절 음식으로 간단하고 건강한 밥상을 준비해보세요

재료: 마늘쫀 100g, 돼지고기 30g(목살)

\*돼지고기 양념: 간장 1/2작은술, 설탕 1/4작은술, 청주 1/4작은술, 후추 약간



마늘쫀은 4cm길기로 썬다.



돼지고기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간장, 설탕, 청주, 후추 약간으로 양념장을 만든다.



돼지고기와 양념장을 넣고 볶는다.



돼지고기가 익으면 마늘쫀을 넣고 마무리한다.



좋은 마늘쫀 고르는 법!

마늘쫀은 굵기가 일정하고 줄기가 곧으며 탄력이 있고 진한 녹색을 띤 것이 좋습니다.

웰다잉 (1)

웰다잉(Well-dying)
- 좋은 삶의 향기에서 전해지고 -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 누구나 아는 진리가 두 가지 있습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
우리는 누구나 웰비잉(Well-being), 좋은 삶을 추구하며 또한 좋은 죽음으로
삶을 마무리 하기를 원합니다.
웰다잉(Well-dying) 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지요?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는 웰비잉(Well-being)과 함께 웰다잉(Well-dying)이라는 용어가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Well은 “좋다”라는 말과
“죽음”을 뜻하는 dying의 단어가 합쳐져서 좋은 죽음, 품위 있는 죽음, 가
톨릭에서는 선종 등으로 통용 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오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오셨지요? 내 삶의 마지막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가톨릭 신자라면 천국에 가는 것, 아프지
않고 자던 잠에 하느님 나라에 잘 가는 것, 선종하는 것이 소원이시지요?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면 그리 가볍게 들려오는 말은 아니지요. 하느님 나
라가 아름답고 좋다 해도 지금 당장 가고 싶지 않은 것처럼...
저는 요양시설에서 오랜 기간 소임을 해 왔습니다. 삶의 마지막에 그곳을
찾아오신 분들의 임종을 도와 하느님 품으로 보내드리는 일을 하면서 여러
다양한 인생과 삶의 마지막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초록빛 산천과 살랑이는 산들바람이 아카시아 향내음을 흩뿌리는 좋은 저
녁나절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떠오릅니다. 저희 수녀회에서 수녀님들이
대모님이라고 불렀던 분입니다. 이분은 수도자는 아니었지만 평생 독신으로
사시면서 늘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사랑을 사신 분
이었습니다. 삶의 지혜가 많으셨고, 누구에게나 특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
들에게 마음으로 베풀어주는 분으로 수도자들인 저희들에게 삶의 스승이
었습니다.
수도자의 길을 살아보겠다고 부르심을 받아 온 어린 예비수녀들은 집에서
일을 많이 해보고 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식사 당번차례가 되면 여러 명

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당번이 되면 기
도시간에도 머릿속은 온통 걱정과 메뉴를 짜느라 분주합니다. 특히 양로
원 봉사 때에는 주방 당번이 되면 성소가 통째로 흔들리는(^) 경험을 하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의 해결사 대모님! 어린 예비수녀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언제 준비해두셨는지 드러나지 않게 구석구석에서
어머니처럼 마음을 다해 해결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대모님을 기억하면
끝까지 내어 주는 삶을 살았던 분, 수많은 사랑의 추억들이 각자에게 향기
로 피어납니다.
대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대모님의 임종을 맞이하는 시간은 정말 순간
적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임종을 지켜보고 보내드리는 일을 했지만 그렇
게 짧은 시간으로 마무리되시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참으로 웰비잉
(Well-being)을 진정으로 사신분이었고 웰다잉(Well-dying)이 되는 삶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남부러울게 전혀 없는 삶을 사실 수 있었지만 스스로 검소한 삶, 따뜻한 삶,
끝까지 베푸는 삶을 사셨던 분으로 주변을 환하게 했던 분으로 지금도 그
분을 떠올리면 삶의 향기가 그대로 전해짐을 느끼며 그리움이 생깁니다.
웰비잉(Well-being)과 웰다잉(Well-dying)은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지
만 사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웰비잉(Well-being)의 삶을 살아가
면서 웰다잉(Well-dying)을 향해 가게 됩니다. 같은 선상에 있는 하나인 것이
지요.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나만 울고 많은 사람은 웃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나만 웃고 많은 사람은 울 수 있도록 사
십시오.”

권경은 노엘라 수녀
(가톨릭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산책로

봉무 공원



자 가 용 승용차 이용 시 봉무 공원 주차장 이용
대중교통 버 스 : 101, 101-1, 401, 동구8, 북구2, 팔공1 봉무공원 앞 정류장에
하차 / 급행1 한국폴리텍대학(영남융합기술캠퍼스)정류장 하차
지하철 : 1호선 아양교역 2번 출구에서 급행1, 401, 팔공1, 동구8 등 환
※ 대중교통 이용 시 정류장 하차 후 공원까지 1.3km 도보



추천도서



‘노년의 향기’
‘생명’과 ‘빛’으로 나아가는 노년기

정하돈 지음
예지 | 196쪽 | 140X210 | 14,000원
문의: 031)900-8061

수녀님이 알려주는 원만한 노년을 위한 안내서!
이 책은 수녀 박사 1호인 정하돈 안나 마리아 수녀가 노년기에 접어드는 이들이 당면하는 도전,
문제들을 신앙 안에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용적인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직접 만난 노인, 청년층을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썼으며, 영적 묵상에 비중을 두어 독자들이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성찰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가톨릭 금빛신문

대구 중구 남산로4길112 대건관 1층 가정복음화국
발행인 : 조환길 주간 : 박상용 편집 : 기획팀(총괄 김사훈)

대표전화. 053-250-3077 Fax. 053-250-3078
E-mail. dgfamily@dgca.or.kr 기사제보 및 문의. 053-250-3114

가정복음화국을
온라인에서도
만나보세요!



국내성지순례 (3)

# 영동지역 최초의 성당

## - 양양성당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에 위치한 춘천교구 양양성당은 1921년 5월 5일 영동 지역에 최초로 설립된 본당입니다.

양양성당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이광재 신부님입니다. 신부님은 해방 뒤 38선 이북이 공산화되면서 종교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자 북측 신자들이 남쪽으로 피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목숨을 걸고 성직자, 수도자들이 무사히 남측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양들을 두고 갈 수 없다.”며 월남하지 않고 있다가 1950년 10월 9일 새벽 공산군에 체포되어 원산 와우동 형무소에서 인민군의 총탄을 맞고 순교하였습니다.

양양성당은 이광재 신부님의 거룩한 순교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83년 순교기념각과 동상을 세웠으며, 2000년에는 순교 50주년을 맞아 기념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친필 교리서와 생전에 사용하던 제구등의 유품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현재 이광재 신부님은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오 주교와 동료 80위와 함께 시복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양양성당 순례를 통해 하느님께 감사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취재 : 박정자 엘리사벳 기자

### 가는길

**자가용** 중앙고속도로 → 서울양양고속도로 → 양양 톨게이트 → 양양군청 방면 네비게이션 “양양성당” 또는 “천주교 춘천교구 양양교회(성모당 기준 4시간 20분)”

**대중교통** 시외버스 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 → 양양시외버스터미널  
4시간 30분 소요(가격 36,200원 / 6월 19일 현재)



## 47호 가정미션 : 가족이 함께 미사봉헌하기(1번이상)

###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세대별 의견 듣기 -

### 대학교에 꼭 가야 할까요?

이 설문은 세대별 다양한 의식을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름에 대해 비판이나 부정적 시각은 삼가 주십시오.



▲ 설문지 링크

**설문기간** 2022. 6.19(주일) ~ 6.29(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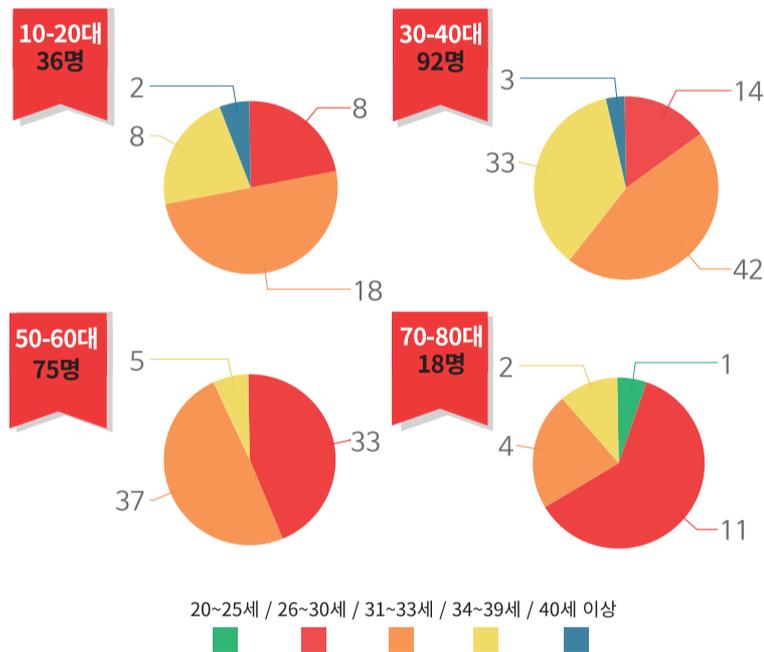
**응답방법** ① QR코드 접속 후 제출  
② 아래 작성 → 사진촬영 → 카카오톡채널 ‘가정복음화국’ 발송

#### 47호 세대별 의견 듣기 설문

1. 성별 및 연령대 : 남 / 여 (            세 )
2. 대학교에 꼭 가야 할까요? ( 예 / 아니오 / 모르겠다 )

### 46호 설문 결과

주제 : 결혼적령기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가정복음화국 행사안내

### 임신부 축복미사



매달 둘째 금요일 임신부 축복미사가 봉헌됩니다.

일시	미사장소	비고
7.8(금)	교구청 대화합실	진행 10시 - 임신부 모임 11시 - 미사와 축복식
8.12(금)		
9.16(금)	성모당	대상 신자 임신부 (예비신자 포함) *사전 신청 필수
10.7(금)	교구청 대화합실	
11.11(금)		
12.9(금)		



◀ 임신부 축복 미사 신청서



### 하반기 '노년을 위한 토빛피정'

일시	차수	월	일시	신청마감
일시	4	8	8.31(수) - 9.1(목)	8.18(목)
	5	10	10.5(수) - 10.6(목)	9.22(목)
	6	11	11.9(수) - 11.10(목)	10.27(목)

- 장 소** 한티 피정의 집
- 대 상** 65세 이상 신자
- 주 제** 기도를 통한 하느님 안에서의 행복한 노년
- 피정비** 6만5천원 / 1인